



거래소-네이버페이,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만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네이버페이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클린 캠페인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LS전선, 동해시 저출산 극복 지원... 1억 기탁
LS전선이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생 교육 활동을 후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사업에 나선다.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에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열린 기탁금 전달식에서 이상철 LS전선 동해공장장(오른쪽)과 심규연 동해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BNK부산은행, 9월말까지 '무더위 쉼터' 운영
BNK부산은행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10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을 활용해 운영되며, 은행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



아시아나, 초·중·고생 150명 대상 진로특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30일 강서영어도서관과 함께 지역 초·중·고등학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프로그램인 '색동나라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색동나라교실은 작년에 이어 강서영어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두번째 진로 특강이며, 참가희망인원이 많아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KCC, 홈페이지 개편... 검색 최적화

KCC가 자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KCC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친절하고 명확한 소통 창구'라는 의미의 K.C.C(Kind & Clear Communication Channel) 콘셉트를 바탕으로 정보 검색이 최적화된 홈페이지로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KCC는 리뉴얼을 통해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UI·UX 적용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홈페이지를 선보여 방문자의 편의, 가독성,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기후·지구과학 기술 지속 투자”

AOGS 참가... 기후테크 세션 개최 ‘그린소사이어티’ 연구팀 성과 공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강원 평창군에서 진행된 ‘2024년 제 2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이하 AOG S)’에서 지구과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K-기후테크 스타트업 세션’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AOGS는 세계적으로 자연 재난 취약 지역인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재해 근원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지구과학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설립한 학회다.

이번 행사는 재단의 K-기후테크 인재 육성 및 사업화 프로젝트인 ‘그린 소사이어티’ 소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3팀의 기술창업 경험 발표, 패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상진 과장(왼쪽부터), 한국그리드포밍 강지성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이수종 연구원, 포항공대 황동수 교수,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센터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조선반 매니저가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군에서 진행된 ‘2024년 제 2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널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K-기후테크 세션에서는 재단의 기후기술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 및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그린 소사이어티’ 선발 연구팀 중 3팀(한국그리드포밍, 고려대학교 오

정리질리언스연구원, 블루카본)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혁신 기후기술 및 지구과학 기술 발전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독립운동가 후손 양옥모씨 ‘희망나눔인’ 선정

올해 네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여 양씨, 어려운 이웃 위해 10년째 봉사

3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집안 후손인 양옥모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T는 희망나눔재단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올해 네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나눔재단은 KT그룹이 소외계층 지원과 ICT 기반 나눔 확산을 위해 설립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재단이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단체에 주는 상이다.

네 번째 수상자 양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년째 봉사 중이다.



양옥모 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수여한 희망나눔인상 상장과 상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KT

양씨의 부친 양승만 선생은 1927년 신숙 선생이 설립한 신창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민족교육에 앞장섰다. 1930년대 중국 길림민중자위군 제3군에 소속돼 한국독립군 상사로서 항일 투쟁운동을 펼쳤던 공훈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경기도 양평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증조부는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현수막을 직접 만들어 군중에 나눠줘 만세운동에 동참했고, 조부는 1920년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

양씨는 중국 하얼빈에서 나고 자라 2011년 한국으로 귀국, 2013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양씨는 귀국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대한적십자사 등 노인복지관·장애인시설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적십자·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에 월 8만원 정기후원을 하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정부지원금 5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양씨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 닿는 때까지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구 신임 본부장 취임 (서울강원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양한 실무와 조직관리 경험에 중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구 전(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장(사진)이 ‘제14대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구 신임 본부장은 충남 출신으로 지난 199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했다. 이후 비서실장, 인력지원실장 등을 역임해 행정 실무 역량을 쌓아 왔다. 건보공단은 이용구 본부장이 건보공단 내 주요 보직을 맡아 온 만큼, 향후에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본부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가천대 길병원 △병원장 김우경
- ◆조달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유지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박지영
- ◆뉴스시스 ◇입사 △정치부장 정녹용 부장 ◇송진 △스포츠부장 문성대 부장직대
-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 △Tech 혁신단장 이국희
- ◆IBK투자증권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본부장) △경영전략부문장 전무 문찬걸 △리서치부문장 전무 용대인
- ◆하이투자증권 (임원 신규 선임) ◇상무부 △준법감시본부장 김상우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한양증권 ◇신임 센터장 △ST센터장 신인식(상무)

부음

▲한정수씨 별세, 한상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부장)씨 부친상= 30일, 경기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6호, 발인 3일. 031-218-6500

동화약품 ‘가송 예술상’ 공모전 개최

동화약품이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동화약품은 ‘2025 가송 예술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주제’ 부문과 ‘콜라보레이션’ 부문 2개로 구분된다.

‘주제’ 부문에는 접는 부채를 의미하는 ‘접선(摺扇)’을 재해석한 시각예술 전 부문 작품으로 지원 가능하다.

‘콜라보레이션’ 부문은 부채 장인과 협업 가능한 작품으로 장르 제한이 없다.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막 행사에는 수출 여성기업인

장선운 고문당인쇄 대표 금탑훈장 수훈

제3회 여성기업주간 신청민 MS가스 대표 은탑훈장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고문당인쇄 장선운 대표가 금탑훈장을, MS가스 신청민 대표가 은탑훈장을 각각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을 슬로건으로 한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지난해와 같이 여경협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 주관해 마련했다.

개막 행사에는 수출 여성기업인



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함께 다졌다.

개막식에선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 금탑훈장 1점, 은탑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3점의 정부포상이 돌아갔다.

금탑훈장을 받은 장선운 대표(사진)는 지난 99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 매출 규모가 30억원이던 회사를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